

100세 시대 꿈과 희망 문화공연 통해 전해요!

+ 고양실버인력뱅크 꿈전파문화공연단



꿈은 나이를 잊게 한다. 주름진 얼굴로 무대에 나서도 공연하는 순간만큼은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된다. 문화공연을 통해 사람들에게 100세 시대의 꿈과 희망을 전하는 고양실버인력뱅크 꿈전파문화공연단(이하 공연단)의 활약이 궁금하다.



꿈을 널리 널리



나만의 실력 키워 일과 봉사를 병행하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했던가. 100세를 바라보는 어르신들도 이곳 공연단에서는 당당하고 멋진 단원이다. 꿈전파문화공연단은 고양특례시의 노인일 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위탁·운영하는 고양실버인력뱅크의 공익형 활동 중 하나다. 2004년 어르신 자원봉사센터 역할로 시작한 고양실버인력뱅크는 시대 변화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사업 전문 수행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해왔다. 일자리만 연계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사업을 통해 참여 어르신들의 전문성을 키우고, 봉사활동을 하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공식적으로 한 달에 30시간 주 2~3회 활동하지만, 그 외 시간에도 요양 병원이나 어린이박물관 등지로 봉사 차원의 공연을 나설 때가 많다. 꿈전파문화공연단의 무대를 기다리는 기관들도 적지 않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동안 공연을 멈춰야 했던 때도 있었지만, 9월부터는 한 달에 1~2회 이상 공연을 이어갈 계획이다.